영어어문교육 *제20권* 1호 2014년 봄

영어 통사, 문법, 습득 논문 조사연구: *영어어문교육* 학술지 게재 논문(1995-2013)

강 문 구*
(Kongju National University)
김 용 명**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Kang, Mun-Koo & Kim, Yong-Myeong. (2014). Research on syntactic structures, grammatical form, and language acquisition in English educ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0*(1), 243-260.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research articles on English syntax, English grammar and language acquisition that have been published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for 20 years. In recent years, language professions and researchers have maintained that grammatical competence cannot be easily acquired unconsciously in an EFL environment such as in Korea, and that it can be acquired and developed through *focus on form* (Doughty & Williams, 1998) by focusing on meaning and communication (Doughty, 1991; Doughty & Williams, 1998; Robinson, 1996, 2001; Skehan, 1998). In this view,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papers that suggest effective learning and teaching of syntactic rules and grammatical forms in EFL classrooms by classifying into three criteria such as subject of study, theme and method of study. Finally it proposed a desirable direction toward English syntax and grammar learning and teaching in Korea.

[effective syntax · grammar learning/acquisition/communicative competence, 효과적인 통사 · 문법학습/습득/의사소통능력]

Ⅰ. 서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각 나라간의 문턱이 낮아지며 세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요즈음, 전 세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화 과정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세계 공용어로 자리매김 한 영어로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세계화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 주저자, ** 교신저자

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큰 걱정거리는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다.

최근 학교에서 의사소통위주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사적 구조와 문법 형식에 과한 지도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통사·문법 교육이 마치 자연스럽고 유창한 의사소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비단 학교 안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한 반면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으로도 작용하는 영어는 세계시장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영어사용이 큰 몫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비즈니스 문서에서 발견되는 오류들에 대한 비즈니스 실무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Beason(2001)의 연구에 의하면, 비즈니스 실무자 들은 비즈니스 영어문서에서 발견되는 오류에 대해 철저하지 못한 준비 및 계획, 직원이 속한 회사의 이미지에 대한 실추, 문서 작성자의 영어 문법적 능력의 부재, 혹은 효과적인 영작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유창성을 강조하는 의사소통위주의 영어수업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경시되고 있는 바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결과 중심(product approach)보다는 과정 중심(process approach)의 교육이 효과적 인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김부자, 2005). 그렇다면 의사소통 능력이란 무엇인가? Hymes(1972)는 말과 글로써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 또는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이나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도 영어문법에 대한 지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적절한 의사소통이 힘들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한편 우리나라같이 교실 안에서의 형식적 영어교육을 제외하고는 교실 밖에서 영어를 말할 기회가 별로 없는 EFL 의 환경에서 학생들의 영어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에 중대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경시되어 왔던 통사·문법의 이론적 고찰과 효과적인 영어습득의 주요 동향을 살펴봄 과 동시에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창립 19 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지 특집 연구의 일환으로 학술지「영어어문교육」에 1995 년 창간호부터 2013 년 19 권까지 지난 19 년 동안 게재되었던 통사·문법과 어휘, 형태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조사 분석하고, 통사·문법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1995 년부터 2013 년까지 *영어어문교육*(*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에 수록된 논문들 중 영어 통사·문법과 습득을 주제로 한 논문들을 분류, 분석해 보았다.

2. 분석 방법

총 57 편의 논문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다. 연구대상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L2 학습자들로 분류했고, 연구주제는 각 논문들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형태와 의미, 오류의 분석, 문법 교수법, 학습자의 인식, 습득 이렇게 5 가지로 분류했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구분했는데 실증적 연구는 다시 문헌연구, 실험연구, 분석연구, 조사연구 이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류해 보았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분석 기준

1) 연구 대상에 따른 분류

대학생 이상의 L2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0 편, 중·고등학생이 대상인 연구는 5 편이었으며 초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 편에 그쳤다.

2) 연구 주제에 따른 분류

57 편의 논문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형태와 의미에 관련된 연구가 28 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습득에 관련된 논문이 12 편, 학습자의 인식에 관련된 논문은 7 편, 문법 교수법에 관련된 논문이 6 편,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한 논문이 4 편이었다.

3)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

총 57 편의 문법과 습득에 관련된 논문들 중에서 이론적 연구는 8 편, 실증적 연구는 48 편을 연구 대상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그 중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는 4 편, 문헌연구는 7 편, 실험연구는 19 편,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석연구는 27 편 이었다. 문법과 습득에 관련된 논문이다 보니 분석과 비교, 대조의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1
분류 기준 별 문법, 습득에 대한 연구 현황

분류기준	범주 및 분포
연구대상	초등학생 : 2 편 중.고등학생 : 5 편 대학생 이상의 L2 학습자 : 50 편
연구주제	구조.형태와 의미 : 28 편 습득 : 12 편 학습자의 인식 : 7 편 문법 교수법 : 6 편 오류 분석 : 4 편
연구방법	이론연구: 7 편 실증연구: 50 편
연구유형	문헌연구: 7 편 조사연구: 4 편 분석연구: 27 편 실험연구: 19 편

계속하여 본 연구의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에 따른 자세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

2. 연구 대상별 분류

1) 초등학생 대상 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2 편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 주제는 아동의 언어, 공주어, 담화인지에 관한 구조 형태의 분석 논문이 1 편, 문화적 적응 능력에 따른 영어 습득으로 학습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조사연구가 1 편 이었다.

Ho Han(2004)는 공주어, 공목적어의 발화가 초등 아이들에게 일반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 그 점에 대한 제안점을 제시했다. 아이들의 공주어, 공목적어가 포함된 문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담화에 근거한

접근, 수행 제한적 접근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제안을 했다. Joo-Kyung Park (2007)은 영어 습득과 문화 적응도의 개념을 통해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영어습득과 문화적 적응을 인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8~13 세 학생들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호주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은 그 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 친구 사귀기, TV, DVD 시청, 영어책 읽기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영어 듣기, 쓰기 능력이 말하기 능력 다음으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고 그 과목들은 호주의 생활과 더불어 가장 만족스러운 향상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영어로 대화를 자유롭게 한다거나 음식이 맞지 않고 향수병에 걸리거나 날씨, 차별에 부적응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특히 그들은 영어로 하는 교실 수업의 활동에 부적응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호주 교실 문화의 이해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 중·고등학생 대상 연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5 편으로 Hak-Soo Kim(1998)은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재귀대명사를 습득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14~15 세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결국 모국어의 변수 집합 설정 때문에 L2 의 습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았고 여전히 보편문법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송해성(2003)은 중학교 1 학년 영어 교과서의 형태소 도입 순위와 자연적 순서 가설과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중학교 교과서 두 개를 선정하여 실제 습득 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Jung-Tae Kim(2006)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L2 학습자가 수동태를 만들 때 자동사의 의미론적 특성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Sung-Mook Choi(2007)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파생 형태학을 명시적인 교수방법으로 하는 수업의 효과가 어휘와 독해 실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했고 Hyun-Oo Lee(2011)는 중·고등 학교 2007 년 교육개정의 언어 형태의 문제점을 고찰 해 보았다. 교과서나 교육과정의 고찰에 대한 연구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도 진행되었지만 이 연령대에 관련된 문법과 습득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대학생 이상 L2 학습자들

대학생 이상의 성인 L2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했다. 총 50 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았지만 일반적인 L2 를 학습하는 학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상당했다. 이하에 계속 분석을 하겠지만 대체로 대학생 이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형태, 구조와 의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한 만큼 여러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는데 더 자세한 연구 내용을 아래에서 논의 해 보도록 하겠다.

3. 연구 주제별 분류

1) 구조.형태와 의미 연구

연구 주제별로 5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구조.형태와 의미에 관련 된 연구이다. 최종욱(1996)은 여러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to 부정사의 형태와 구조, 의미에 대해 고찰 하였고, 정춘희(1998)은 비-아리스토텔레스적 범주론인 원형범주 이론의 입장이 언어현상에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고찰해 보았다. 이상윤(2000)은 영어절의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 서진희(2000)는 주어-동사의 도치에 관한 소고, 최숙희(2001)는 Chomsky 의 최소주의 체계 속에서 일치(Agreement)를 통해 허사 구문을 분석하면서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 강영아(2003)는 강세를 받는 강조어구가 전치되어 문두로 나가면서 주어-조동사 혹은 주어-운용자의 도치가 일어나는 구문을 초점화로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구문을 화제화로 분석했던 Heagem 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화제화와 Wh -구 혹은 화제화와 부정어구가 함께 문두에 나타나는 문장의 도치 구문과 그 문법성을 Heageman 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고광윤(2003)은 초오서 영어의 부정에 대한 소고, 박찬규(2003)는 영어 등위구조의 중의성 연구에서 등위 접속사 중에서도 특히 'and'에 의해 연결되는 등위구조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했으며 의미적 중의성에 대한 현상을 분석해 보았다. 조길호(2003)는 영어 명사적 관계절의 개념도식에 의한 의미 기술에서 그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의미절을 개념도식을 이용하여 기술했다. Jung-Tae Kim(2004)은 L2 학습자들의 학습 초기 통사론 단계에서 보여 지는 매개가치의 효과에 대해 연구했으며 특히 그 중에서 Wh-이동에 관련된 연구를 했다. 이는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단순하고 경제적인 구조가 의사소통적 필요를 만족시키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테스트를 거치기 전에 복잡한 동사 구조로 문장을 만들거나 발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냈다. 즉, 학습자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문법체계를 사용하며 그에 상응하는 목표어를 구사한다는 점과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복잡한 Wh - 이동과 같은 구문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최숙희(2004)는 생성문법에서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이라는 연구에서 EFL 에 처해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고 대조해 본 결과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영어 교육에서 도출적 논증법의

방법론을 언어이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제안을 내 놓았다. Sang-Yoon Lee(2005)는 조동사의 의미론적 기능에서 발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조동사를 n 이한 구조적 문법의 범주 내에서 체계화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를 했으며 체계화된 의미망을 통해 9 개의 조동사 개념을 설명했다. 강문구(2006)는 영어의 서법 조동사 Will/Shall 에 관한 연구에서 과거 고대 영어에서부터 현대 영어에 이르기 까지 Will/Shall 의 쓰임에 대하여 고찰 했고 그 구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Hyeson Park(2006)은 L2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의 복잡한 술어 습득에 대해 연구했다. 복잡한 구조와 더불어 명사구의 구조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일관성 없게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복합적인 매게 구조를 제안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Kyung Lee(2007)은 대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동사구의 사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학생들이 일상적 대화를 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동사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일상 대화의 1/3 정도가 문맥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동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 됐으며 자주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학생들이 자주 쓰는 동사로는 'get, take, put'과 같은 동사를 빈번히 사용했으며 이는 특정한 동사를 쓰는 대신 개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들을 더 빈번히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의미론적 기준을 만들어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동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론적 자질을 잘 알 수 있도록 학습 시켜야 한다고 했다. Wan Song Hyun(2007)은 합성어부터 분석어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변화 시킨 주된 요인들을 조사해 보았다. Eun-Joo Moon(2008)은 L2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실험을 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영어 여격구조의 습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PD 와 DOD 의 구조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의 영어 교과서 에서는 이 두 구조의 분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 DOD 구문을 학습하기 전에 PD 구조를 먼저 습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하고 있다. Hye-Sook Kim 과 Kim Dammers(2008)는 한국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영어 어순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는 학생들의 토익 성적에 따라 나누어진 학생 실험자들의 어순배열 능력도를 측정했는데 토익 성적과 어순배열의 능력 수준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Woo-hyun Jung(2008)은 대조분석과 중간언어에서 형용사의 순서에 대해 연구 했는데 L2 를 학습하는 EFL 환경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묘사하는 말인 형용사의 순서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그리고 EFL 환경의 한국 학습자들이 영어의 서술 형용사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어떤 특정한 영어의 형용사들은 한국의 것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특성의 것도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형용사를 명사절 비단절 위계, 학습자의 주관적, 객관적 원리원칙, 상징적 원칙의 범주로 나누어 논의 해 보았다. Jung-Tae Kim(2010)은 L2 를

학습하는 학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국 학생들이 동작동사와 함께 나오는 전치사구를 이해하는 범위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며 학습자들의 긍정적 L2 의 학습 입력에 해당 언어의 문법의 입력이 올바르게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이 연구에서 알아 낸 것은 한국 학습자들은 영어의 처소격 PP 를 단순한 위치로만 파악 한다는 점과 EFL 환경의 학습자들은 매우 능숙한 수준의 학습자들 조차도 위치의 처소격과 방향성의 처소격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 ESL 상황의 학습자들은 원어민만큼은 아니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차이를 알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연구에서 밝혀냈다. Eunpyo Lee(2011)은 간호 저널 초록에 쓰이는 시제와 태의 형태와 선호도에 대해 알아 보았다. 간호전문 저널을 쓰는데 동사의 사용은 다양해 보였지만 연계어는 'should'나 'suggest'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제한된 사용의 양상을 보였다. 특히 실험의 참가자들의 79%가 글의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주로 사용했고, 17%는 능동태의 현재시제를 사용했으며 저널 방식을 소개 하는 데는 96%가 수동과 능동태를 혼용하여 과거시제를 사용하는 게 지배적이었다. 마지막 결과를 표현할 때도 92%정도가 과거시제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 줌으로서 연구의 신빙성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Lee Young Mi 와 Kang Mun Koo(2012)는 영어 조동사 Will 의 통사 언어적 의미와 사용에 대해설명하고 Will 이 시제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동사의 유형인 조동사에 포함되는지 분석했다. Yong-Myeong Kim(2013)은 IP 와 관련된 문장의 발달 연속성을 보여주는 연구를 했다. 앞에서 간략히 소개된 문장의 구조, 형태와 의미에 대한 연구와 논문들은 대체로 기존의 문헌연구나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하고 비교, 대조하는 연구가 많았다.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원인을 밝혀 객관적 실험을 거쳐 적절한 교수법과 제안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오류의 분석

학습자들이 문법을 습득하며 자주 발생 시킬 수 있는 오류를 분석하고 실험한 논문들을 분석해 보자. Woo-hyun Jung(2006)은 학습자들이 글쓰기를 할 때 영어의 수동태 문장에서 문법적 오류를 저지르는 것을 분석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수동 문장을 만드는데 학습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의 유형은 무엇인지, 모국어의 역할에 특정한 관심을 두어 그에 의해 타당한 실수를 저지르는 근원을 제공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수동 문장을 만들 때 실수는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가장 흔한 실수는 be 동사를 사용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Eun-Hee Lee(2007)는 관사의 사용에 있어서 학습의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관사의 오류 패턴뿐 아니라 그에 대한 적절한 교수법을 논하였다.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관사 사용에 매우 미흡함을 보였으며, 중급단계는 정관사를 가장 정확하게 구사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학습자들의 오류패턴이 초급자 들의 수준에서도 평범하게 유추가 가능했던 부분에서 보여 지는 기이함을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습자의 외국어 능숙도 수준 정도에 따라 관사의 각기 다른 교수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Jae-Suk Suh (2008)는 EFL 환경의 대학생들 사이에 문법적 정확도와 화석화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 했다. 담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형태의 문법적 정확성에 대한 연구로 L2 의 사용에서 나중에 그 언어가 화석화 될 가능성을 추측해 보았다.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해 영어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오류를 발생 시키고 파생 형태나 문장의 역할을 구분해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일상적 의사 소통에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에는 분명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게 될 수도 있다는데 이 연구의 결론이다. Eun-Hee Lee(2008)은 EFL 환경의 교사들이 관사를 사용하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2 개의 대학원 수업에 온라인 포럼을 통해 알아본 후 분석 했다. 이 실험의 참가자들은 부정관사나 정관사의 사용이 필요한 곳에서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으며 혹은 서로 뒤바꾸어 사용하는 경향도 보였다. 그러므로 형태에 초점이 맞춰진 수업은 문법적 규칙을 암기하고 상기하는 방법보다는 의미위주의 활동을 통해 관사의 사용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문법의 요소 중 학습자들이 어렵다고 여겨지고 흔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관사라는 사실을 감안 할 때 오류의 분석에서 관사의 연구는 참으로 유의미한 연구라고 여겨진다.

3) 문법 교수법

그렇다면 학습자들이 많은 오류를 저지르고 어려워하는 문법을 그들에게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구자들은 교수법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김부자(200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주는 어휘 지도에 관한 연구에서 읽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명시적인 어휘 교수전략을 구상해 보았다. 동사 교수전략에 따라 명시적 지도에 의한 의도적인 동사 학습을 한 집단이 읽기 활동을 통해 부수적 어휘 학습만 한 집단 보다 동사 패턴이 사용된 문장의 이해 능력과 동사 패턴을 사용하여 문장을 산출하는 능력이 훨씬 더 우수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는 읽기 활동을 하면서 명시적 지도에 의한 의도적인 어휘학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바, 이 연구는 교실 안에서 의사소통의 능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어휘교수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여겨진다. 강문구(2007) 는 영어 시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에서 시제와 상의 교수학습에 이론적 배경과 토대를 제공했다. Hyun-Oo Lee(2011)는 2007 년 교육개정의 문법구조, 교과서 안에 포함된 문법적 분류, 언어형태에 대한 고찰과 합당한 교수법을 제시했다. Kyunghee Choi(2012)는 122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문장을 주어와 동사를 바꾸어서 의문문 문장을 쓰는 연구를 통해 적절한 의문문 교수법을 제시했다. 송윤희, 박매란(2012)은 영어 시제학습에서 형태초점 교수법의 효과 를 연구했는데 초급수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평가를 토대로 형태 초점 기법 중 입력과 출력활동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명시적인 설명에 시각적 입력 강화를 병행하면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목표형태의 교육에 상당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 이었다.

4) 학습자의 인식

학습자들이 문법을 인식하는 과정, 정도와 습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연구도 이루어 졌다.

Eun-Ah Lee(1999)는 문법과 의사소통간의 상관관계로 학습자들이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문법적 배경지식을 통하여 그들의 의사소통적 능력을 이끌어내고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학생의 문법적 배경지식뿐 만 아니라 흥미와 동기부여는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Ja-Yeon Lim(2003)은 L2 학습에서 시각적 강화와 학습자의 인식의 역할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 연구는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영어의 문법적 구조학습에 어떤 다른 유형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나누어 한 실험은 실험반에서 시각적 입력 강화만으로도 학습자들의 수행능력이 탁월해 졌고, 대조되는 색깔을 통해 목표언어를 강조하는 교수법이 적어도 단기간이지만 학습자들의 기억 속에 두드러져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줬다. Jae-Suk Suh(2004)는 학습자들과 교사 모두 L2 의 문법을 EFL 환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서 논하였다. 황선유(2006)는 구조화된 입력처리 문법지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를 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반, 통제반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 문법 학습 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두 집단 간 입력처리과제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입력처리방법에 사용되는 명시적인 설명의 유무에 따른 이해도와 유용성에 있어서 학습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입력처리에 대한 인식과 과제수행, 문법학습 능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이다. Suwako Uehara & Jean-Pierre Joseph Richard(2011)은 일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했는데

이는 일본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어를 배우는데 무엇을 위해 배우는지에 대한 인식의 연구이다. 조사 대상자들이 뽑은 영어를 학습 하는 이유 4 가지는 직업, 개인의 만족, 공부, 기타였으며 일본 대학 학습자들 의 목표와 미래에 영어 사용의 견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 연구라고 여겨진다.

5) 습득

Hak-Soo Kim(1998)은 20 여명의 원어민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어떻게 한국 학생들이 영어의 재귀대명사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행하였다. L2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 변수가 목표어 설정에 전이가 되어 그 결과 목표어를 수행하는데 많은 오류가 발생된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L2 학습자들은 여전히 보편 문법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김현진(2000)은 제 2 언어 습득에서 부정적 피드백이 갖는 역할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했다. 부정적 피드백, 혹은 부정적 증거들을 가지고 재조정 입력을 만드는 것은 Pinker 의 존재의 증거, 이용성, 제 2 언어 습득에서의 재조정 필요성, 사용 이라는 이 4 가지 기준에 의해 고찰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재구성의 성격에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제 2 언어 습득에 이득이 되는 것인지 Leeman 의 연구에서 재조명했다. Jeong-seok kim 과 Ho Han(2003)은 언어의 습득은 일반적 인지 구조 작용이거나 혹은 인지기술의 성장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일반화 시켰다. Hikyoung Lee (2005)는 담화표시의 다양한 습득이라는 연구를 통해 한국계 미국인이 영어를 말하는데 있어 담화표시의 사용을 조사했다. 그는 담화 표시어 사용과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듯 보인다고 했다. 이 연구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양하게 담화 표시자를 습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백히 더 많은 연구가 이 부분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비 원어만 영어 사용자가 담화 표시자와 같은 공식적 교육을 통해 가르쳐서 습득할 수 없는 원어민이 기지는 언어의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되며 원어민들과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Jung-Tae Kim (2006)은 수동구문의 습득에 대해 연구했고 Boram Kim(2006)은 어떻게 언어적 지식은 처음에 등장하며 언어간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학습자들이 영어의 구조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두 가지 논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했다. 그 연구 결과 EFL 학습자들은 글로 쓰여 진 것 보다는 듣거나 보는 청각적, 시각적 요소에 의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지만 교사가 쓰여 진 언어를 문장이나 단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온전한 이해가 힘들어진 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EFL 환경에서 충분한 배경지식이 주어지지 않고 상황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L2 의

입력은 학습자들의 목표에 습득을 오히려 방해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Mi-Sook Ko(2008)는 단순하거나 복잡한 문법 규칙의 학습에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학습 조건과 과제의 유형에 따른 다른 문법 규칙의 습득에 대한 학습효과를 고찰 한 연구로 130 명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시적 교육과 함축적 교육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단순한 문법의 규칙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는 존재 하지 않았으며 단순하거나 복잡한 규칙은 명시적 상태와 과제가 적합했고 매우 복잡한 규칙의 이해는 명시적 교육과 함축적 교육 후 생산 과제를 주었을 때 이해만 시켰던 그룹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데 있다. 또 Bu-Ja Kim(2008)도 명시적 문법 설명이 필요한가에 대한 실험연구를 했는데 특히 비즈니스 영어 과정에 작문의 정확성을 위해 문법 설명이 명시적으로 필요한지 중 하급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다. 입력의 강화, 직접적 번역, 결과의 반복적 연습, 그리고 즉시 수정을 해주는 피드백이 어느 정도의 문법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문법 패턴에 대한 설명의 효율성이 관심, 주의 집중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여러 습득에 관련된 연구와 논문들이 말해주듯 단순히 하나의 분절화 된 습득과 무조건적인 입력 보다는 언어와 언어 간의 연계성과 학습자가 갖고 있는 배경지식이 문법의 습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연구 방법별 분류

1) 문헌연구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 중 문헌을 연구한 논문은 총 7 편으로 교수법에 관한 연구 1 편(강문구, 2007), 형태, 구조, 의미에 관한 연구 4 편 (최종욱, 1996, 2000; 서진희, 2000; 고광윤, 2003), 습득에 관한 연구가 2 편(김현진, 2000; Jeong-Seok Kim, 2003)이었다. 학습자들이 흔히 발생시키는 오류에 다한 기존의 문헌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문헌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실험연구

분석 대상 논문들 중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연구로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법 습득의 효율성과 앞으로의 제언을 엿볼 수 있었다. 총 27 편의 논문이 실험연구 논문 이었다. 대체로 실험연구는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나누어 진행 되었으며 연구자가 세워 둔 가설이 합당한지, 그에 다른 효과와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중 습득에 관련된 연구는 7 편,

인식에 관련된 연구는 2 편 구조, 형태 의미와 관련된 연구는 5 편, 교수법 3 편, 오류분석이 1 편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 학습자들이 문법을 학습할 때 흔하게 나타나는 오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실험을 통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분석연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분석연구로 분류된 논문은 총 27 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했다. 교과서를 분석한 송해성(2003)은 7 차 영어 교과 교육과정 에 중학교 1 학년 영어 교과서 두 개를 선정하여 9 개의 형태소를 대상으로 교과서의 도입 순위를 조사 다음, 이들 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중학교 1 학년 학생들의 실제 습득 순위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또 Woo-hyun Jung (2009)은 한국어와 영어에 있어서 형용사의 순서를 비교, 대조해보는 분석연구 를 하였으며 Sang Yoon Lee(2005)는 조동사의 개념을 설명함과 동시에 각각의 의미론적 기능을 분석했다. 이처럼 분석연구는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 졌으며 분석을 통한 문법과 습득의 통합적 이해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4) 조사연구

본 연구에서 조사연구로 분류된 논문은 총 3 편으로 Hikyoung Lee(2005)는 담화표시 사용을 위한 다양한 습득을 연구하기 위해 L2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의 도구로 대상자들을 인터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Joo-Kyung Park(2007)은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했으며 Suwako Uehara 와 Jean-Pierre Joseph Richard(2011)은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의사소통에 중대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경시되어 왔던 문법의 이론적 고찰과 효과적인 영어습득의 주요 동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창립 2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지 특집 연구의 일환으로 학술지「영어어문교육」에 1995 년 창간호부터 2013 년 19 권까지 지난 20 년 동안 게재되었던 문법과 어휘, 형태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조사 분석해 보았다. 총 57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기준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의 세 가지로 분류 해 보았는데 연구대상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L2 학습자들로 분류했고, 연구주제는 각 논문들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형태와 의미, 오류의 분석, 문법 교수법, 학습자의 인식, 습득 이렇게 5 가지로 분류했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구분했는데 실증적 연구는 다시 문헌연구, 실험연구, 분석연구, 조사연구 이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류해 보았다. 연구대상에서 대학생 이상의 L2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0 편, 중·고등학생이 대상인 연구는 5 편이었으며 초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 편에 그쳤다. 연구주제는 5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형태와 의미에 관련 된 연구가 28 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습득에 관련된 논문이 12 편, 학습자의 인식에 관련된 논문은 7 편, 문법 교수법에 관련된 논문이 6 편,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한 논문이 4 편이었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 이론적 연구,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 보았는데 실증적 연구는 다시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분석연구로 나누었다. 이 중 이론적 연구는 8 편, 실증적 연구는 48 편이었는데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는 4 편, 문헌연구는 7 편, 실험연구는 19 편,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석연구는 27 편 이었다. 문법과 습득에 관련된 논문이다 보니 분석과 비교, 대조의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논문들은 분류 방법에 따라 논의 되었다. 문법은 구조와 형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그 영역의 연구가 활발했다. 다만 학습자의 인식이나 교수전략에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강문구. (2006). 영어의 서법 조동사 Will/Shall에 관한 연구. *영어어문교육, 12*(3), 99-122.

강문구. (2007). 영어 시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 *영어어문교육, 12*(3), 133-156.

강영아. (2003). 초점화(focalization)와 화제화(Topicalization)로 분석한 영어 도치 구문. 영어어문교육, *9,* 161-178.

고광윤. (2003). 초오서 영어의 부정에 대한 소고. *영어어문교육, 9*(2). 91-107.

김정희. (2003). 담화표시어 연구. *영어어문교육, 9*(2).133-171.

김현진. (2000). 제2언어습득에서 부정적 피드백이 갖는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재조정 입력의 역할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9*(2). 151-171.

김부자. (2003). 효과적인 문법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영어어문교육, 9*(2), 109-132.

김부자. (2005). 형태에 초점을 맞춘 교수가 영어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비즈니스 영작문 교육을 위한 탐색. *영어어문교육, 11*(1), 77-98.

김부자. (2006).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주는 어휘 지도에 대한 연구: 동사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2*(1), 131-158.

박매란, 송윤희. (2012). 영어 시제학습에서 형태초점 교수법의 효과. *영어어문교육, 18*(4), 361-384.

박찬규. (2003). 영어 등위구조의 중의성 연구. *영어어문교육, 9*(2), 173-192.

서진희. (2000). 주어-조동사 도치에 대한 소고. *영어어문교육, 6,* 143-157.

송해성. (2003).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영어 형태소 도입 순위와 자연적 순서 가설과의 상관관계 연구. *영어어문교육, 9*(1), 131-152.

이상윤. (2000). 영어절의 의미분석에 관한 연구. *영어어문교육, 6,* 159-178.

이상윤. (2002). 영어절의 주제에 관한 연구. *영어어문교육, 8*(1), 223-239.

정춘희. (1998). 인지문법에서 본 언어현상. *영어어문교육, 4,* 179-206.

조길호. (2003). 영어 명사적 관계절의 개념도식에 의한 의미기술. *영어어문교육, 9*(1), 173-187.

최숙희. (2001). 허사와 EPP. *영어어문교육, 7*(1), 161-178.

최숙희. (2004). 생성문법에서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 *영어어문교육, 10*(1), 179-200.

최종욱. (1996). 영어부정사 연구: To-부정사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2,* 81-130.

최종욱. (2000). 영어관계대명사 *That* 연구. *영어어문교육, 6,* 199-217.

황선유. (2006). 구조화된 입력처리 문법지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효과. *영어어문교육, 12*(3), 267-286.

Beason, L. (2001). Ethos and error: How business people react to errors.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53*(1), 33-64.

Choi, Kyung Hee. (2012). A Study on learning to write English interrogative sentenc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2), 21-44.

Choi, Sung Mook. (2007). How derivation prefix instruction impacts incidental vocabulary acquis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3), 1-22.

Chu, He Ra. (2012). Instruction effects of teaching relative clauses on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in Korean EFL class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1), 23-43.

Doughty, C. 1991. Second language instruction does make a difference: Evidence from an empirical study on SL relativiza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3,* 431-69.

Doughty, C., & Williams, J. 1998.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n, Ho, Choe, Soon-Gwon, & Park, Yeon-Sook. (2004). Null subjects and objects in child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2), 25-42.

Hyun, Wan song. (2007).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English from a synthetic language to an anaytic On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2), 47-61.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Pride &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pp. 71-90). Harmondsworth, Middleses; Penguin Books.

Jung, Woo-Hyun. (2006). Error analysis: what problems do learners face in the production of the English passive voic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2), 19-40.

Jung, Woo-Hyun. (2008). Adjective ordering: contrastive analysis and interlanguag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2), 121-150.

Kim, Boram. (2006). The acquisition of the English locative alternation by Korean EFL learners: what makes L2 learning difficul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4), 31-68.

Kim, Bu-Ja. (2008). Is a brief explicit grammar explanation needed in business English cours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3), 69-94.

Kim, Hak-Soo. (1998). Parameter resetting in reflexive binding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4,* 207-228.

Kim, Hye-Sook & Kim Dammers. (2008). Korean students' perception and English word orde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2), 67-86.

Kim, Jeong-Seok & Han, Ho. (2003). An account of LAD with ESL/SLI data.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1), 49-66.

Kim, Jung-Tae. (2004). *Wh*-movement in the L2 learner's initial syntax.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2), 1-23.

Kim, Jung-Tae. (2006). Unaccusativity and L2 passive construc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4), 69-89.

Kim, Jung-Tae. (2010). Korean learners' interpretation of English locative PPs with manner of motion verb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1), 41-59.

Kim, Yong-Myeong. (2013). An IP-related syntactic developmental sequence (ISD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1), 157-176.

Ko, Mi-Sook. (2008). Effects of instructional treatments with learning conditions and tasks on learning of simple and complex grammatical

rul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4), 93-114.

Lee, Eun-Ah. (1999). Bridging the gap between grammar and conversation in Korean college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5,* 27-48.

Lee, Eun-Hee. (2007). Teaching English articles by learners' proficiency level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4), 109-126.

Lee, Eun-Hee. (2008). Advanced NNS teachers' different error patterns on English articles depending on a task typ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2), 109-130.

Lee, Eun-Pyo & Shin, Myeong-Hee. (2011). A study on examing nursing journal abstrac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4), 177-191.

Lee, Gun-Soo. (1999). Local obviation as a relative phenomen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5,* 63-78.

Lee, Hikyoung. (2005). The variable acquisition of discourse marker use in Korean American speakers of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2), 1-18.

Lee, Hyun-Oo. (2011). On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language forms listed in the 2007 Korean English Curriculu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2), 39-58.

Lee, Jin-Kyong. (2007). Use of common verb phrases in describing everyday activities by advanced Korean-speaking learners of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2), 109-127.

Lee, Sang-Yoon. (2005). A study of the semantic function of modalit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2), 149-170.

Lee, Young-Mi & Kang, Mun Koo. (2012). A study on *Will* as Modal or Non-modal.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3), 175-190.

Lim, Ja-Yeon. (2003). The role of visual enhancement and awareness in L2 learn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 81-94.

Moon, Eun-Joo. (2008). L2 acquisition order of the PD and the DOD structures in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3), 221-239.

Park, Joo-Kyung. (2007). Korean children's perception of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and cultural adaptation in Australia.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4), 127-152.

Park, Hyeson. (2006). Acquisition of English complex predicates in SLA.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2), 177-194.

Park, Hyeson. (2012). Modality in Korean learners' spoken interlanguag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1), 197-216.

Pyo, Si-Yeon. (2013). Acquisition of English dative alternation by Korean EFL learne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2), 173-194.

Robinson, P. (1996). *Consciousness, rules, and instruct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Peter Lang.

Robinson, P. (2001). Task complexity, task difficulty, and task production: Exploring interactions in a componential framework. *Applied Linguistics*, *22*, 27-57.

Skehan, P. (1998). *A cognitive approach to language lear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uh, Jea-Suk. (2004). What do our students and teachers believe about grammar in EFL contex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1), 23-52.

Suh, Jae-Suk. (2008). Grammatical accuracy and possibility of fossilization in chatting by EFL college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4,* 161-178.

Suwako Uehara & Jean - Pierre Joseph Richard. (2011). A survey of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future use of English goal orientatio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3), 213-235.

예시언어: English
적용가능 언어: English
적용가능 수준: Secondary/Tertiary

강문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14-701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신관동 182)
Tel: 041-850-8190
Email: kangmunkoo@hanmail.net

김용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784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321 호
Tel: 02-3704-3533
Email: mencius@kice.re.kr

Received in January 15th, 2014

Reviewed in February 26th,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ch 5th, 2014